

金現感虎 說話의 形成過程과 脫佛敎的 意味

鄭 相 珍*

차 례

- | | |
|-----------------------|---------------------|
| I. 序 論 | 1. 虎女의 變身欲求와 그 挫折 |
| II. 金現感虎 說話의 形成過程 | 2. 虎女의 죽음과 人間中心的 思考 |
| III. 金現感虎 說話의 脫佛敎的 意味 | IV. 結 論 |

I. 序 論

『三國遺事』卷五에 所收되어 전하는 ‘金現感虎’는 여인으로 변신한 호랑이와 사람과의 인연을 寺刹緣起譚에 걸맞게 불교적으로 형상화한 전설이다. 게다가 이 설화는 首尾가 相應된 구조적 통일성은 물론, 문학적 수식까지 갖추어서 단순한 설화라기보다 어느 개인의 창작으로 인식될 정도의 완벽에 가까운 서사체이다. 따라서 김현감호 설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일찍부터 있어서 형성과정, 정착된 문헌, 설화적 의미, 내포된 사상 등 여러 방면에서 천착되었다.

그럼에도 필자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 설화의 형성과정에 관한 기왕

* 釜山外大 國文科 敎수

의 견해에 대한 插疑와 함께, 이 설화의 불교적 외피를 벗기고 보았을 때의 내재적 의미에 대한 물음에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 사항을 주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김현감호 설화의 형성에 대해서는 어느 개인의 창의적 소산(창작)을¹⁾ 비롯한 몇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불교와는 무관한 민간설화(민담)가 구비전승되었을 터인데, 어느 好事家가 이것을 불교적인 분위기에 어울리게 윤색해 놓은 것이 우리가 접하는 김현감호 설화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개연적 전제에서 이 설화가 형성된 사정 및 그 형성의 바탕이 된 구비설화가 무엇인가를 추정해 보고, 이와 병행하여 그것이 虎願寺라는 사찰연기담으로 전인·윤색된 연유와 그렇게 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검토해 볼 것이다.

둘째, 김현감호는 '說話性'과 '佛敎性'이 혼용된 설화이다. 그런데 一然이 중국계 설화인 申屠澄傳承을 병재·비교하면서 添述해 놓은 그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하여 후대에 이 설화를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불교적인 것으로 경사·인지케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설화의 해석 및 내재적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靈驗, 報恩, 輪廻 등 각종 佛敎思想과 결부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입장에서 토구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김현감호 설화의 불교적 외피를 벗긴 '설화성'만에 관심을 둘 때 사정은 달라진다. 곧 호녀의 변신욕구와 그 좌절, 이를테면 사람이 되고자 하는 호랑이와 그것을 수용치 않으려는 인간과의 갈등을 설화화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 주목하여 그 갈등 양상과 그것에 내포된 의미, 그리고 호녀의 변신욕구가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³⁾

-
- 1) 그 대표적인 것이 車溶柱 교수의 견해로, 그는 "본 설화의 구성 내용이 어떤 契機에 의해 내용의 핵심 부분이 이야기로 형성되어 유전하는 과정에 점차 潤色된 傳承說話가 아니고 한 사람에게 의해 저작된 創作說話임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개인의 창작으로 確言하였다. 車溶柱, 『金現感虎說話研究』, 『古小說論攷』(계명대 출판부, 1985), p. 71.
 - 2) 金榮晚, 『金現感虎說話에 나타난 佛敎思想 研究』, 『國語國文學』 18·19집(부산대 국문과, 1982), pp. 39-52.
 - 3) 본고에서처럼 김현감호 설화에서 불교적 요소를 배제하고 그 서사적 의미, 장르적 성격, 김현의 환상적 체험에서 도출된 주제의 구조적 의미 등을 토구한 연구도 있다. 宋孝燮, 『金現感虎의 幻想의 主題』, 『국어국문학』 95(국어국문학회,

이상에서와 같이 김현감호 설화의 형성과정에 대한 기왕의 견해들을 참고하면서 再照明해 보고, 불교적 포장을 벗긴 설화성에 주목하여 서사양상과 거기에 투영된 세계인식 등을 살펴봄으로써 김현감호 설화에 대한 논의의 폭을 더하여 볼까 한다.

II. 金現感虎 說話의 形成過程

『삼국유사』에 소수된 각종 불교설화들의 형성에 대하여, 사실의 기록이거나 혹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일부의 변개, 목적성을 띤 허구적 창작, 민간 전승으로부터의 차용 등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⁴⁾ 김현감호 설화의 형성문제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 바, 이에 대한 기왕의 견해들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를 죽이지 않을 수 없었으나 불교의 계율에서 불 때 살생이 문제여서 虎願寺가 필요하였기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내었을 가능성,⁵⁾ 어떤 사람이 호랑이로 인하여 榮貴를 얻게 되자 절을 지어 호랑이의 명복을 빌고 사찰명도 호원사라 하였을 가능성,⁶⁾ 불교적인 성격의 보은설화에 虎의 化人모티브가 결부되어 형성·정착되었을 가능성이⁷⁾라는 등의 추론에서 그 사정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호랑이를 죽인 살생이 문제가 되었다든가, 호랑이로 인하여 누군가가 부귀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등은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호랑이를 위하여 절을 세우고 그의 명복을 빌었다는 설화상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이 설화는 동물의 인간둔감을 비롯하여 동물과 인간과의 교구, 天唱(하늘의 소리) 등 신이적·환상적 모티브들이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1986), pp. 231-252. 논의의 시각이나 접근방법, 그리고 도출된 결론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본고를 작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4) 曹喜雄, 三國遺事 佛敎說話의 形成過程, 『韓國文學史의 爭點』(集文堂, 1986), p. 200.

5)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집문당, 1990), p. 192.

6) 金鉉龍, 『韓國古說話論』(새문사, 1984), p. 274. 김현룡 교수는 몇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 인용된 것은 그 중의 하나이다.

7) 金榮晚, 三國遺事 所載 說話의 通時的 研究, 『韓國文學論叢』 제4집(韓國文學會, 1981), p. 24.

런 점을 두고 볼 때, 김현감호 설화는 어떤 사실의 변개이거나 개인의 창작으로 보기 어렵다. 사실의 변개치고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칠 뿐만 아니라, 설화의 중심축이 된 모티브들이 어느 개인의 순수한 창의력의 소산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현감호 설화는 그것이 목적의식에서이든 자연발생적이든 간에 기왕에 구전되던 그 무엇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아진다. 그러면 그 바탕이 된 것이 무엇이나 하는 점인 바, 이 설화가 설화성(흥미성)과 불교성(포교성)이라는 양면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 설화성 곧 흥미위주로 구비되었던 민담이 아난가 보아진다.

불교설화들이 단순히 흥미를 주기 위하여나 흥미위주의 이야기가 아닌, 중생들로 하여금 불심을 촉발시키고 그들에게 감화력을 주기 위한 목적성을 띠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 설화 전부가 당초부터 불교적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곧 불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간설화가 어떤 계기 또는 누군가의 작위에 의하여 불교설화로 변모되었(하였)을 경우도 많을 것이다.⁸⁾ 김현감호 설화의 형성도 그렇게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 설화의 중추가 되는 호랑이의 변신이나 보은은 불교와는 상관없이 구비전승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현감호 설화의 중핵이라 할 수 있는 ‘虎의 化人’과 ‘虎의 報恩’이라는 두 이야기(또는 挿話)가 불교설화화되는 과정에서 결합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당초부터 양자가 融即되어 구비되었던 민간설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찰연기설화로써 최종적 의의가 확보되도록 불교적으로 윤색한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전자일 경우도 예견되지 않는 바는 아니나 후자일 가능성이 더 짙다. 이 설화가 사실의 기록 내지 변개이거나 개인의 창작이 아닌 바에야, 구비되고 있는 몇 개의 설화를 소재원으로 하여 그 성격과 지향이 다른 또 하나의 이야기(김현감호)가(를) 형성되었(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더욱이 동물이 인간으로 둔갑하여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서 보은도 하는 내용의 구비민담이 산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호녀와 인간과의 인연 및 양자 간의 보은을 다룬 민담이 이전부터 존재·유전되었을

8) 曹喜雄, 앞의 논문, p. 201 참조.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찰연기에 부합되도록 불교전설로 윤색·재구된 (한) 것이 김현감호 설화라 보아진다. 여기서의 민담은 김현감호의 원초적 형태가 되는 셈인데, 이를 편의상 ‘本源形’이라 명명한다.

그러면 본원형의 구체적 모습(내용)이 어떠냐가 문제가 된다. 그것은 우선 김현감호 설화에 윤색된 불교적 외피를 벗긴 그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바, 다행이 그런 내용의 민담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호랑이 처녀의 죽음)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⁹⁾

- (가) 청년(화랭이라고 함)이 월성 숲에서 경비를 하다가 호녀와 인연을 맺다.
- (나) 호녀의 거처로 청년이 따라가다.
- (다) 호녀는 오라비가 오자 청년을 장 속에 숨기다.
- (라) 호녀는 청년의 손에 죽을 것을 자청하고 다시 만날 날을 알려주다.
- (마) 나라에서 현상금(삼천만호부로 봉함)을 걸고 호퇴치자를 구하다.
- (바) 청년은 약속한 날짜에 호녀를 만나 그를 퇴치하고 큰 부자가 되다.

이 설화는 불교적인 분위기나 정감은 물론이거니와 사찰연기와는 무관한 흥미 중심으로 결구되어 있다. 즉 이 설화는 불교에 대한 신앙이나 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한 모티브나 장치는 찾아볼 수 없고, 민담을 민담답게 하는 흥미 위주로 짜여있다.

그러나 소개된 <호랑이 처녀의 죽음>이 김현감호 설화의 원형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승과정에서 불교적 요소가 탈락된 변이형인지가 문제된다. 구비

9) 김현감호와 동일한 유형의 설화라고 판단되는 口碑說話가 7편 조사, 보고 되고 있다. 이를 題目과 出典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신흥사의 유래 : 『한국구비문학대계』 4-1(충남 당진편), p. 177.
- (2) 호암사의 유래 : 같은 책, 7-2(경북 경주·월성편), p. 701.
- (3) 호륜사의 유래 : 같은 책, 7-2, p. 701.
- (4) 호원사의 전설 : 같은 책, 7-15(경북 구미·선산편), p. 390.
- (5) 탐돌이와 호랑이 처녀 : 같은 책, 6-6(전남 신안편), p. 577.
- (6) 호랑이 처녀의 죽음 : 같은 책, 7-3(경북 경주·월성편), p. 588.
- (7) 호랑이 처녀 : 같은 책, 8-1(경남 거제편), p. 52.

이 중에서 (1), (2), (3), (4)는 寺刹緣起說話이며, (5)는 사찰연기는 아니지만 불교적 색채가 짙은 작품이고, (6), (7)은 불교적·전설적 요소가 배제된 민담으로 본문에 소개된 것은 (6)이다.

전승되고 있는 ‘김현감호형’ 설화의 대부분이 사찰연기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교적 성격이 짙다는 사실을¹⁰⁾ 감안할 때 변이형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유교문화 및 과학의 발달로 설화 향유층의 세계관이 점차 현실적·합리적인 것으로 변모되어 갔다는 점에 근거하여 변이형으로 보기도 한다.¹¹⁾ 그러나 그렇게 쉽게 추정하고 끝낼 사항이 아니다. 우선 전자의 경우를 보자.

高麗 때까지만 하여도 불교가 士·民이 공유한 국가적 종교였으나 朝鮮朝에 들어오면서 그 사정이 달라졌다. 불교는 사대부에게 의하여 철저히 배척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반 백성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불교는 민중층의 지지와 그 기반 위에서 존속되었고 포교 또한 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곧 민중들의 세계관이 유교보다 불교 쪽에 더 경사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동일한 유형의 설화이면서 불교적 요소가 내포된 것—더욱이 사찰이라는 증거물과 결부된—과 그렇지 않는 것이 병존할 경우, 후자보다 전자가 더 전승력을 확보하면서 구비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구전되고 있는 ‘김현감호형’ 설화의 各篇 중에서 불교적인 것의 수가 많은 이유도 이러한 사정에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김현감호형’ 설화 중 불교적 요소가 내포된 각편과 그렇지 않는 각편 간의 수적 우열에 근거하여 원형과 변이형을 추정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의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후자의 경우를 보면, 조선조가 시작되면서 불교가 左道로 몰려 쇠퇴일로에 있었으며, 유교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과학의 발달로 점차 현실적·합리적 세계관으로 변모되었음을 전제하고, 이러한 영향에서 불교적인 요소와 초월적인 신성성의 국면이 축소·탈락됨과 더불어 현실적 요소와 세속적 국면만 남는 쪽으로 변이를 이르렀다고 하면서 <호랑이 처녀의 죽음>이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변이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공감하면서도 불교가 조선조에 와서 좌도로 몰렸다고는 하지만 일반 민중들의 불교에 대한 信心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점, 불교성이 배제된 근인이 설화 향유층의 세계관적 변모로 인한 것이라면 현재 구비전승되고 있는 김현감호형 설화중에서 그런

10) 위의 각주 참조.

11) 林在海, 說話의 現場論的 認識, 박사논문(영남대 대학원, 1986), p. 87.

金榮晩도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앞의 논문, p. 38 참조.

내용의 각편 수가 도리어 많아야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 등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결국 김현감호형 설화의 각편 중에서 불교성이 배제된 것이 수적으로 적다거나, 유교 및 과학의 발달로 인한 설화 향유층의 세계관적 변모에 준거하여 <호랑이 처녀의 죽음>이 변이형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 및 추단은 그 설득력이 약하다 하겠다.

따라서 꼭 <호랑이 처녀의 죽음>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불교성이 배제된 설화가¹²⁾ 김현감호형 설화의 원형 곧 본원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심층적 추론을 가능케한 것은, 첫째 『삼국유사』의 기록 중 상당수의 것들이 민간설화의 채록임을 인정할 수 있음과 아울러, 나아가 처음에는 불교와 상관 없는 이야기들이 차차 불교설화로 바뀌어 갔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¹³⁾ 둘째 불교와 무관한 민간설화들이 자연적(또는 인위적)으로 불교설화로 변모되기는 쉬워도, 사찰연기담으로서 완벽한 구조를 갖춘 불교전설이 전승과정에서 불교적 포장을 벗고 순수한 민담으로 변이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라는 점, 셋째 동물이 사람으로 둔갑하여 인간과 교구하면서 서로 수수관계를 가진다는 내용은 불교설화 쪽보다는 민담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호랑이 처녀의 죽음>의 전승지가 '호원사'란 사찰이 실존했던 지방과 동일한 경주라는 사실¹⁴⁾ 등에 의해서이다.

12) 이를 편의상 앞으로 '<호랑이 처녀의 죽음>類'라 하겠다.

13) 曹喜雄, 앞의 논문, p. 203. 이러한 사정을 武王說話, 處容說話 등을 통하여 논증한 바 있다. 金學成, 三國遺事 所載說話의 形成 및 變異過程 試考, 『冠嶽語文研究』 제2집(서울대 국문과, 1977), pp. 198-209.

14) '虎願寺'라는 절이 경주에 있었음은 文獻資料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그 사찰이 있었던 지방에서 전승된 설화임에도 사찰연기와는 무관한 내용의 것이 있다는 것은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사찰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이되었을 것이라 상정해 볼 수도 있으나, 사찰이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사찰연기담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면서 구비되었던 설화가 사찰이 없어졌다고 해서 쉽게 그것과는 무관한 내용의 민담으로 변이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본다. 따라서 <호랑이 처녀의 죽음>류의 민담이 경주지방에서 구전되었는데, 마침 그 지방에 새로운 사찰이 창건되자 이 설화를 수용하여 사찰연기담으로 형상화하면서 그 이름도 설화의 내용에 어울리게 호원사라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현감호 설화에서처럼 동물의 인간둔갑모티브는 신화시대부터 설화의 소재로 자주 이용된 바이다. 따라서 민중들이 현실적 욕구(富貴)의 대상적 차원에서 그러한 모티브를 수용하여, 꼭 <호랑이 처녀의 죽음>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민담을 창안·구비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민담을 어느 누군가가 불특정의 개인을 ‘김현’이란 인물로 바꾸고, 만남의 시간 및 장소를 불교적 분위기에 어울리게 福會日과 興輪寺로 설정하였는가 하면, 天唱모티브까지 첨가하여 종교적 신성성·초월성을 고조시키는 설화로 윤색하고, 다시 이를 ‘虎願寺’라는 사찰연기담과 인과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 「但爲妾創寺謂眞詮資勝報」를 삽입하고, 말미에 「現既登庸創寺於西川邊號虎願寺」를 첨가함으로써 사찰연기담으로서 완벽한 구조를 갖춘 불교설화로 형성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김현감호 설화라 보아진다.

이상에서 김현감호 설화는 ‘<호랑이 처녀의 죽음>類’의 민담이 사찰연기담인 불교전설로 변이된 것임을 추론하여 보았다. 그러면 이런 유의 민담이 어떤 연유로 호원사사찰연기담으로서 결인·윤색되었으며, 그렇게 한 주체는 누구일까 하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김현감호 설화에 나오는 호원사는 지금 경주 皇城公園 栢栗寺로 가는 소로 변에 그 寺趾가 남아 있다고 한다.¹⁵⁾ 따라서 호녀의 청원에 의하여 김현이 절을 세웠다는 내용은 허구적이라 할지라도 호원사라는 사찰이 존재하였던 것만은 사실이라 하겠다. 그런데 사찰명이 ‘호원사’이고 보면, 그것은 호랑이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사실 때문에 이름이 그 사실과 인연을 맺게 되고, 다시 그 이름 때문에 그 사실이 기념되는 유의 이야기가 불교의 教化傳承 가운데 적지 않기 때문이다.¹⁶⁾ 그런데 사찰연기담은 단순히 그 명칭의 유래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그 사찰에서 깊은 佛性의 세계를 보게 한다든지 불성의 遍在함을 의식케함

15) 韓國佛敎敎院, 『韓國의 寺趾』 1(一志社, 1974), p. 48. 『東京雜記』에도 虎願寺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이 기록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金現이 역사적 인물인지의 여부도 알 수 없을뿐더러, 그 내용 중에 “創寺於西川邊 號虎願寺”라 되어 있어 설화 상의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6) 黃湏江, 『新羅佛敎說話研究』(一志社, 1985), p. 158.

로써 生類를 아끼고 接人接物에 善緣을 맺게 하여 마침내는 厭離世間하고 回心 探眞하게 하는 데 그 主眼이 있다.¹⁷⁾ 이런 점에서 사찰의 유래는 말 그대로 설화 곧 허구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호원사의 창건도 ‘호원’이라는 名義에 집착하여 그와 유관한 특정의 사건(또는 사실)이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 유래를 살펴볼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호랑이는 獠猛한 동물로 원시시대부터 인간을 끝없이 괴롭힌 존재이며, 특히 山寺에 거처하는 불승들에게 상당한 서달림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호랑이임에도 그에 대한 불교적 인식은 다르다. 불교에서는 우주의 삼라만상은 다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처님의 法力이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호랑이도 비록 맹수이기는 하나 불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법력으로 다스리고 지성으로 대해주면 그것에 감화됨은 물론 인간과도 善緣을 맺을 수 있는 동물로 인식하고 있다. 곧 호랑이도 불성을 회복하면 인간과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친연적인 존재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호랑이에 대한 불교적 인식을 강조·표상하는 사찰이 필요하였는지 모른다. 이때 마침 ‘<호랑이 처녀의 죽음>類’가 민간에서 구전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듣고 이를 바탕으로 사찰연기담화하면서 그 이름을 ‘호원사’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로 볼 때 ‘<호랑이 처녀의 죽음>류’를 사찰연기담으로 전인·윤색한 주체는 종교적·사회적 특수 계층인 불승들이 아닌가 한다.

구전되던 민간설화가 불교전설로 변이되는 데는 (가) 구비전승 과정에서의 자연적인 변이, (나) 누군가에 의한 인위적인 변이, (다) 문헌정착 단계에서의 변이 등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의 경우라면 그 주체는 설화 향유층(서민계층), (나)의 경우라면 종교적·사회적 특수 계층(불승), (다)의 경우라면 문헌 정착자가 된다.

그런데 앞서 보인 바 호원사라는 사찰이 실제 존재하였으며 그 名義 또한 호랑이와 유관한 것이기 때문에, 구비전승 과정에서 설화 향유층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변이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하여 문헌정착 과정에서 변이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김현감호 설화는 ‘호원사’라는 사찰의 창건과 더불어

17) 위의 책, p. 163.

어 형성되었을 것임을 감안할 때, 이 설화가 정착된 문헌이 崔致遠의 『殊異傳』이든 朴仁亮의 『殊異傳』이든 경우에 따라 『三國遺事』이든 간에 최소한 이들 문헌이 나오기 전에 사찰이 창건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원사의 창건과 때를 같이하여 누군가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변개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바, 그 누구는 당대 사회에서 종교적·사회적 특수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불승들일 수밖에 없다. 즉 불승들이 佛寺 創建의 유별남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의 종교(불교)적 세계관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虎患의 공포에 시달리는 중생들에게 정신적 안정도 주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전인·윤색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현감호 설화는 사찰연기담으로서의 의의를 확보, 구전되다가 문헌에 정착된 것으로 짐작된다.

Ⅲ. 金現感虎 說話의 脫佛敎的 意味

‘김현감호’는 ‘<호랑이 처녀의 죽음>類’의 구비민담을 바탕으로 하여 사찰연기담으로서 의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불교적으로 윤색된 설화이므로 ‘설화성’과 ‘불교성’이란 양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불교적 영형성이나 一然의 자의적 해석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설화적 성격에만 주목하여 그 敍事樣相과 그 속에 투영된 世界認識을 살펴보기로 한다.

1. 虎女의 變身欲求와 그 挫折

김현감호 설화에서 불교적 외피를 벗기고 보면, 호랑이가 여인으로 둔갑하였다는 것, 虎女와 사람이 교구하였다는 것, 호녀가 자결함으로써 호환이 없어지고 인간(김현)도 부귀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세 개의 본질적 화소(motifeme)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따라서 서사적 갈등의 시작에서부터 그 해결까지의 주체적 행위자는 호녀인 셈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金現]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람으로 둔갑한 동물[虎女]의 이야기이라 하겠다.

호녀의 변신은 完인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에 의해서이다. 동물이 사람으로 변신한 설화들에서 그들의 변신목적은 여러 가지이다. 그 중에서 대표

적인 것 두 가지를 든다면, 인간을 해치기 위한 수단에서와 完인이 되고자 하는 욕구에서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여우둔갑담이나¹⁸⁾ 虎食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을 해치기 위하여 노인이나 노승으로 둔갑하였다가 실패한 호랑이의 이야기¹⁹⁾ 등이 전자에 해당된다면, 國祖神話에 등장하는 熊女를 비롯하여, 한 남자를 두고 두 동물(지네와 구렁이)이 대립을 벌이다가 남자가 지네 편을 들어줌으로써 지네가 완인이 되었다는 이른바 지네각시형 설화,²⁰⁾ 이웃집 딸에게 장가를 들어 허물을 벗게 되었다는 蛇新郎型 설화²¹⁾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김현감호 설화에서의 호녀도 웅녀나 지네각시, 사신랑처럼 인간이 되고자 하는 願望에서 변신하였다.

호녀의 궁극적 지향이 사람에로의 永久變身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사람이 된 후에 동물적 속성이나 흔적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사람과 더불어 지극히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변신의 의도(목적)가 완인이 아닌 사람을 해치기 위하여 임시적 방편으로 변신한 호랑이들의 경우, 자기의 의도를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꼬리같은 것을 보임으로써 본체가 탄로나고 결국 사람에 의하여 퇴치당하고 만다. 이처럼 만약 호녀가 본체로 다시 회귀할 것을 전제로 한 일시적 방편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통한 어떤 본능적 충족 이룰때면 사람을 해치기 위한 그런 것에 변신의 의도가 있었다면, 인간으로의 둔갑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동물적 속성을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호녀에게서는 그런 흔적이나 의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인간적 속성만 견지할 뿐이다.

한편 호녀가 사람으로 둔갑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完인이 되는 것은 아

18)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례도 있다. 李太祖의 건국을 도운 여우 이야기는 여자로 둔갑한 여우가 財力家로 하여금 병을 알게 한 후 무당으로 자칭해 굶을 해 주고 그 사례금을 받아 조선 건국의 자금으로 주었다는 내용의 민담이 그것이다. 『韓國口碑文學大系』, 1-7, p. 758.

19) 다음 항에서 이런 類의 설화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있을 것이다.

20) 『한국구비문학대계』, 7-6, p. 386, 8-5, p. 119 및 380. 같은 類型的의 설화이면서 完인이 아닌 龍이 되어 昇天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韓國口碑文學大系』, 4-1, p. 469, 4-2, p. 543.

21) 위의 책, 1-2, p. 336, 4-1, p. 357, 5-2, p. 374 및 640, 7-4, p. 220, 7-6, p. 579, 8-1, p. 195.

니다. 異性인 사람을 만나 일정 기간 동안 그와 더불어 교유·교구를 해야만 성취될 수 있다. 이는 곧 인간의 도움 없이는 결코 완인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신랑형 설화, 지네각시형 설화, 螺中美婦型 설화 등 異類의 변신담을 통해서도 확인되며,²²⁾ 그 뿌리는 국조신화 상의 熊女의 변신에서 찾을 수 있다. 웅녀는, 비록 일상인이 아닌 초월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桓雄의 도움에 의하여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호녀의 사정도 그런 것에 근거한 것이라 하겠는 바, 여기에 등장한 인물이 다름아닌 '김현'이다.

『삼국유사』 '김현감호'조에는 김현과 호녀가 흥륜사의 복회에 참여하여 遶塔 중에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김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복회일이 되면 비록 불교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탑돌이를 한 것이 당시(新羅時代)의 사회 풍조이고 보면, 김현도 그저 일상적·의례적으로 요탑을 하다가 그저 우연히 호녀를 만났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一然의 시작은 완전히 김현에 경사되어 있다. 호녀의 遶塔이 갖는 의의나 의미에 대한 언급은 없고, 김현의 요탑의 致誠에 大聖(부처)이 感應하여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²³⁾ 이러한 일연의 해석은 지극히 불교 중심적 발상에 말미암은 것이라 하겠는데, 굳이 불교의 영험적 측면에서 본다면 도리어 호녀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는 완인이 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인연을 맺게 될 남자를 하나 점지해 달라는 의도에서 탑돌이를 하였을 것이고,²⁴⁾ 그 결과 부처의 영험을 입었는지는 모르나 김현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호녀는 김현과 교유·교구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자기의 본체를 숨겨야 한다. 여기서 일정 기간 동안의 本體隱匿은 웅녀가 백일동안 죽과 마늘만을 먹

22) 사신랑형 설화에서 사신랑이 이웃집 처녀와 결혼한 첫날밤에 허물을 벗고 그것을 신부로 하여금 잘 보관토록 한 것이나, 나중미부형 설화에서 美婦가 일정 기간 동안 총각이 자기의 본체를 엿보지 말도록 부탁한 것은 인간의 도움이 없이는 완인이 될 수 없음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23) 蓋大聖應物之多方 感現公之能致誠於旋遶 欲報冥益耳(『三國遺事』卷五 金現感虎條).

24) 김현감호형 설화의 각편 중의 하나인 '탑돌이와 호랑이 처녀'의 경우, 호녀가 탑돌이를 하면서 부처님에게 사람이 되게끔 도와달라는 내용이 있다. 『韓國口碑文學大系』, 6-6, P. 557.

으면서 穴居한 것이라든지, 사신랑형 설화에서 허물을 숨기는 일, 나중미부형 설화에서 우렁이색시가 자기 본체를 숨기는 일 등에서와 같이 일종의 禁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알 리 없는 김현이 억지로 호녀의 거처에 따라감으로써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녀의 꿈은 무산되고 만다. 호녀의 입장에서 보면 금기를 어긴 것이고, 김현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破壞者가 된 셈이다.²⁵⁾

金現感虎 條에서 호녀의 이미가 “비록 좋은 일이나 안한 것만 못하고,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이니 나무랄 수 없다”²⁶⁾라고 한 것은 자기 딸이 김현과 인연을 맺은 일에 대한 怨望의 말이 아니다. 딸의 신분이 탄로된, 그러므로 완인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한탄이자 체념의 표출이라 하겠다. 이로 볼 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호녀로 하여금 자결케 한 주체는 악행을 일삼은 세 오라비가 아닌 인간인 김현인 셈이다. 종교적 논리에서나 인간적 윤리면에서 보더라도 마땅히 천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사람을 해치는 세 오라비이지 호녀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악한 호랑이는 自省의 기회를 얻어 계속 살 수 있게 되고, 이에 반하여 선한 호녀는 희생되고 만다.

앞서 ‘犧牲’이라 하였으나, 엄밀히 말하면 호녀의 자결은 희생이 아니다. 완인이 되고자 하는 호녀의 꿈은 본체가 탄로됨으로써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다.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고 만 셈인데, 남은 길은 본체로 회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택하는 길뿐이다. 여기서 호녀가 후자를 택하였다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라도 동물적 속성 곧 惡을 거부하고, 인간적 속성 곧 善을 견지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달리 말하면 호랑이면서 호랑이이기를 거부한 굳건한 의지를 자결로써 보인 것이다. 호녀의 죽음이 깊은 연민의 정을 자아내게 한 것도 이 때문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호녀의 意志와 決行이 결코 일방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호녀로 하여금 인간적 속성[善]을 견지케 하고, 또한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한 데는 인간인 김현의 자세가 한 몫을 하였기 때문이다.

25) 이런 현상은 사신랑형 설화에서 부인이 남편의 허물을 불에 태워버림으로써 화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중미부형 설화에서 총각이 부인의 정체를 엿봄으로써 본체로 회귀하는 사정과 동일하다 하겠다.

26) 遂好事不如無也 然違事不可諫也(『三國遺事』卷五 金現感虎 條).

김현이 처음 만난 것은 호녀가 아니라 처녀이다. 그러므로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하룻밤 즐겁게 보냈으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雲雨의 樂을 누린 상대는 처녀가 아닌 호녀이기 때문이다. 상대의 본체가 호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의 김현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아마 심한 모멸감이나 공포감같은 것을 느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현은 그런 면을 내색하지 않았을뿐더러 도리어 호녀를 인간적인 존재로 관념·대우하였다. 자기를 위하여 자결하겠다는 호녀의 말에 김현이 “異類와의 교구가 비록 몇몇한 일은 못되지만 그래도 하룻밤 인연을 맺었는데, 어찌 배필의 죽음을 팔아 벼슬을 살 수 있겠느냐”²⁷⁾라고 응수한다. 이는 의례적인 말이거나, 동물의 자기희생적 태도에 대한 인간적 배려에서 한 말이라고는 볼 수 없다. 비록 동물이기는 하지만 동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김현의 의도가 함축된 말이라 하겠다. 때문에 호녀는 감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현을 속인 것에 대하여 더욱 자책하였을지 모른다. 감동과 자책은 호녀의 인간적 속성의 현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결국 처녀의 본체가 맹수임이 확인된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김현의 태도는 호녀의 의지와 결행에 상당한 작용을 한 셈이다.

한편, 김현이 호녀의 거처에 따라감으로써 인간이 되고자 하는 호녀의 꿈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러면 호녀가 싫어하는 데도 굳이 따라간 김현의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될까.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하등 의미를 부여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자기와 교구한 여인의 실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며 김현의 행위도 그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심층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

만약 김현이 호녀의 거처에 가지 않았고 그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다음에 구체적 논의가 있겠지만, 동물과 인간이 부부가 되어 산다는 것은 인간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인간으로서의 상상키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김현이 호녀의 거처에 간 것은 ‘夜來者型’ 설화에서의 그것과 상응되는 일종의 정체 확인 과정이자 호녀의 원망을 수용치 않으려는 그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김현감호 설화에서 불교적 의피를

27) 人友人 彞倫之道 異類而交 蓋非常也 既得從容 固多天幸 何可忍賣於伉儷 之死 僥倖一世之爵祿乎(『三國遺事』卷五, 金現感虎 條).

제거한 그것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원망을 가진 호녀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김현과의 대립·갈등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를 확대하면 동물과 인간의 갈등이다. 그런데 그 서사적 갈등이 결코 첨예하거나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妙味가 있다.

호녀는 죽고 김현은 부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결과론적인 사실에만 주목할 때, 양자간 대립·갈등이 귀착된 결과는 가히 극단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호녀의 죽음은 김현에 의하여 타살된 것이 아닌 자결이며,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의지(인간적 속성의 견지)를 보이려는 호녀의 자세와, 본체가 호랑이임을 알면서도 동물로만 보지 않고 인간적인 존재로 관념·대우하는 김현의 자세는 서로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대립이면서 대립이 아니고 갈등이면서 갈등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해 준다. 이러한 양자의 유희적 갈등관계는 결말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호녀가 자결함으로써 호환이 사라지고 김현도 부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종결된다. 이것은 앞서 보인 것처럼 호녀에 대한 김현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호녀의 본체가 맹수임을 알고서도 경계나 적대시하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어진 副産物이라 하겠다. 따라서 불교적 외피를 벗겼을 때의 김현감호 설화는, 맹수도 잘 대우해 주면 보답도 할 줄 안다는 민중들의 소박한 심성을 바탕으로 당시 人口에 膾炙되었을 변신모티브를 수용하여 형상화한 이야기라 하겠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깔려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사정이야 어찌 되었건 호랑이는 죽고 김현은 부귀를 누렸기 때문이다.

2. 虎女の 죽음과 人間中心的 思考

호녀의 죽음은 그가 인간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에 기인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재영역에 들어와 사람과 동가적 삶을 누리려는 그의 욕구가 결과적으로 죽음까지 초래케 된 것이다. 그렇게 된 사정의 이면에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는 바, 이를 民間信仰 및 虎說話에 투영된 고대인의 虎觀과 결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호랑이는 인간의 존재영역을 끝없이 괴롭힌 맹수다. 그들은

아시아,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인도, 말레이시아, 스마트라, 중국, 만주 등지에 분포·서식하면서 원시시대부터 사람들을 괴롭혀 왔다. 따라서 방어의 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고대인들은 虎食이나 虎患을 당하는 등 상당한 시달림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三國史記』에 호랑이가 城中에까지 들어왔다는 기록이 산재한 것을 감안하면,²⁸⁾ 산간벽지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 정도가 어떠하였는지는 가히 짐작이 간다. 결국 호랑이는 우리 고대인들에게 공포의 대상 그 자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런 호랑이를 고대인들이 神聖體로 관념·숭외하였음을 민간신앙에서 우선 찾아볼 수 있다.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나 호랑이를 神格視하여 외경하고 제사하였다는 古代的 記錄,²⁹⁾ 호랑이를 산돌이, 산지킴이, 신저짐이 등 지방에 따라 달리 칭하면서 山神으로 崇畏한 것이라든지,³⁰⁾ 일부 지방의 巫俗祭儀에서 호랑이를 제의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³¹⁾ 등이 그것이다. 이는 곧 守護神的 또는 虎患豫防的 의미에서 호랑이를 신격화하고 신앙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호랑이는 신앙적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³²⁾ 그 어느 쪽이든 虎을 神聖體로 관념한 것은 호에 대한 공포·불안을 숭외로 극복하려는 인간의 소극적 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된다. 이를테면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신격화하고 숭외한 것이라 하겠다.

종교의, 그것이 저급종교든 고급종교든 궁극적인 관심사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결부된 문제와 그 해결에 있다. 따라서 고대인들이 호랑이를 신격시키고 숭신한 종교적 행위의 근저에는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영역의 보호는 물

28)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條·惠恭王條·文聖王條·眞聖王條·憲康王條, 高句麗本紀, 陽原王條·寶藏王條, 百濟本紀, 溫祚王條·東城王條 등 참조.

29) 瀛國人祭虎以爲神(『後漢書』)이나 瀛常用十月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又祭虎以爲神(『三國志』 魏志 東夷傳) 등에서 그런 사정을 알 수 있다.

30) 張簾根, 韓國의 神堂 形成考, 『民族文化研究』1(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46), pp. 201-202.

31) 慶北 月城郡·迎日郡의 일부 마을에서 별신굿을 할 때 범굿을 하는데, 그 목적은 범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한다. 崔正如·徐大錫, 『東海岸巫歌』(螢雪出版社, 1974), p. 36.

32) 金泰坤 교수는 이것을 호랑이와 神聖이라는 分化되지 않은 未分性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金泰坤, 『韓國民間信仰研究』(集文堂, 1983), pp. 286-292.

론이거니와 그로 인하여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잠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어려운 고난이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 그것과 대결하여 극복하려 하지 않고 回避하고 隱遁하려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중의 하나이다. 위협적인 대상을 성격화하여 숭외하는 것도 소극적이긴 하지만 자기 보호의 한 수단이다. 프로프는 祭儀를 자연에 대한 투쟁의 한 양식으로 보고 있다.³³⁾ 자연의 위력 앞에 힘의 한계를 느낀 인간이 제의를 통하여 자연의 힘을 변질시키면서 자신들의 생존과 영역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호랑이를 神體로서 관념·숭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한편, 호랑이가 성격화된 그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그의 영험성이 示顯된 이야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高麗朝始祖의 先祖인 虎景聖骨將軍 및 朝鮮朝始祖의 先祖인 穆祖가 호랑이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설화를 들 수 있다.³⁴⁾ 여기서 호랑이는 山神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이 설화들은 山神陰助說話라 하겠다. 민간신앙에서 人格神으로서의 산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또 호랑이를 산신으로 관념·숭신한 것은 호랑이가 그 莽狂한 異常性으로 인하여 숭앙의 대상이 될 필연성을 가진 동물임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³⁵⁾.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저기 산신령이 가신다'라고 말하면 호환을 면할 수 있다는 것도 그런 사정의 일단을 보인 것에 다름 아니다.

호랑이가 성격인 존재로까지 격상되지는 않았으나 영물로서 인식되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가 하면, 인간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존재로 설화화되기도 하였다. 부친이 죽은 후 3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侍墓살이를 한 孝子의 至誠에 감동한 호랑이가 부모의 묘자리를 정해주어 移葬하였더니 巨富가 되었다거나, 어느 사람이 목구멍에 비녀가 찢려 도움을 청하는 호랑이를 구해주었다더니 묘터를 잡아주었고 그로 인하여 가문이 번성하였다는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이런 유의 이야기는 각종 문헌이나 구비채록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인간과 호랑이간의 親緣性을 보여주는 설화라 하겠다.

33) V.Y.Propp 著, 최애리 譯, 『民譚의 歷史의 起源』(文學과 知性社, 1990), P. 49.

34) 『高麗史』 高麗世系 및 『韓國民俗綜合報告書』 全北篇(文化財管理局, 1974), p. 665 참조.

35) 孫晉泰, 『朝鮮民族文化의 研究』(乙酉文化社, 1948), p. 267

이상에서처럼 호랑이는 그 계기가 무엇이든 간에 祟畏의 대상이 되었는데, 영적인 동물로서 인간과의 친연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호랑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호랑이 그 자체로 존재하였을 때에만 국한된다. 다시 말하면 호랑이가 동물로서 동물의 존재영역에서만 살았을 때 인간으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호랑이가 그 계기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으로 둔갑하여 인간처럼 행세할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초자연적인 神聖體는 물론이고 인간과 친연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곧 숭신적·친연적 대상이 아닌 적대적·대립적 존재로 인식되면서 그 가치의 貶下는 물론 인간에 의하여 퇴치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된다.

호환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의 이야기,³⁶⁾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아들의 이야기,³⁷⁾ 기지로써 호랑이를 물리친 이야기,³⁸⁾ 호식당한 이야기³⁹⁾ 등은 호랑이의 변신담이다. 이들 설화에 등장하는 호랑이들의 대부분은 사람을 유인하여 해치기 위한 수단으로 변신한다. 그러나 호환을 입었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인간에 의해서 그 정체가 탄로나고 퇴치되어 결국 죽음과 더불어 본체로 회귀되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⁴⁰⁾ 여기서 호랑이가 사람으로 변신하였다는 것, 그의 정체를 사람이 알아낸다는 것, 그리고 사람에 의하여 퇴치당한다는 것은 호랑이가 신성체이거나 친연적인 동물이 아님은 물론 그 존재적 가치가 인간보다 못함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곧 人間優越意識을 보인 것이다.

항상 자연을 외경적 대상으로만 인식하면서 살았던 인간이지만 지혜의 발달과 더불어 문화적 삶을 어느 정도 누리게 되면서 사정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를테면 외경적인 자연이 정복 가능한 자연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異類가 사람으로 변신하여 인간 존재영역 안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더 이상 외경적이나 신이적일 수 없는 인간적 질서를 훼손하는 지극히 부정적인 행위

36) 『韓國口碑文學大系』 1-1, p. 192, 5-1, p. 469, 5-3, p. 410, 7-6, p. 112, 8-10, p. 623.

37) 위의 책, 1-7, p. 510, 1-8, p. 409, 2-6, p. 124, 4-2, p. 346, 5-1, p. 469, 6-12, p. 581, 8-5, p. 113.

38) 위의 책, 1-3, p. 421, 4-6, p. 598.

39) 위의 책, 6-6, p. 552, 5-2, p. 533.

40) 이런 현상은 비단 虎變身譚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변신의 대표적 동물로 인식되고 있는 狐變身譚에서도 마찬가지로 있다.

로 인식되었다. 앞서 보인 虎變身譚은 이러한 인간의 세계인식의 변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일종의 變身失敗譚⁴¹⁾이라 하겠다.

김현감호 설화도 호변신담이다. 그러나 호녀의 변신 의도는 앞의 사례의 그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호녀는 인간을 해치기 위한 임시적 방편으로서가 아닌, 인간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願望과 그 실현을 위하여 변신하였고, 따라서 그는 사람으로의 변신과 더불어 동물적 속성[惡]은 소거되고 인간적 본성[善]만을 견지한 채 지극히 인간적인 사유와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에도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는 죽음과 더불어 본체로 회귀하는 곧 변신을 실패하고 만다. 이는 그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동물로서 동물의 영역에서만 살아가야 할 호랑이가 인간화되어 사람과 더불어 등가적 삶을 누리려고 하였기 때문에서이다.

변신은 각자의 존재영역을 이탈하는 행위이다. 초자연적 법칙이 지배하던 신화시대에는 사람과 異類와의 교구가 신성시되었는가 하면, 동물과 인간이 존재영역의 구분없이 서로 넘나드는 곧 변신을 하여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神聖性的의 징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전설·민담시대에는 그 사정이 달라진다. 자연적 질서가 지배하는 시기로, 각자의 영역이 분리되면서 인간의 존재영역에 대한 우월의식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이류가 변신하여 인간세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내적 질서를 위배하는 적대적·부정적 행위로 인식된다.⁴²⁾ 호녀가 사람되기를 원했다는 것도 그리고 그것이 좌절된 것도 인간의 존재영역의 우월성에 말미암은 것이며 그러한 인간의 세계인식의 설화적 반영이라 하겠다. 비록 변신 주체자의 본체가 호랑이가 아닌 사람이기는 하지만, ‘호자호랑이형’ 설화에서 아들이 병든 노모를 살리기 위해 밤마다 호랑이로 변신하여 개를 잡아다가 봉양하는 至孝를 다했음에도 마지막에는 실패하고 만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될 수 있다.

결국 호녀는 인간으로 둔갑할 때부터 그의 비극적인 운명은 이미 결정된

41) 變身失敗譚이라 한 것은 의도하였던 바를 성취하기 위해 변신을 하고서도 그것을 이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체로 회귀하고 말았기 때문에서이다.

42) 강진욱, 변신설화에서의 ‘정체확인’과 그 의미, 『震壇學報』 73호(震壇學會, 1992), pp. 181-182 참조.

셈이다. 그가 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 도움이 절대적 전제이기는 하였지만, 인간으로서 수용 불가능한 일이다. 호녀 쪽에서 보면 세계 곧 인간의 횡포라 할지 모르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월한 자기들만의 영역과 질서를 지키려는 일종의 정당방위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호녀의 죽음은 자기의 영역을 지키려는 인간들의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호녀의 죽음 또한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IV. 結 論

본론에서 언급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코자 한다.

먼저 形成過程을 살펴본 결과,

(1) 김현감호 설화는 민중들이 현실적 욕구(富貴)의 대상적 차원에서 신화 시대부터 설화의 소재로 자주 이용되었던 동물의 변신모티브를 수용하여 창안·구비된 ‘<호랑이 처녀의 죽음>類’의 민담을 바탕으로 하여 어느 누군가가 불특정의 개인을 ‘金現’이란 인물로 바꾸고, 만남의 시간 및 장소를 불교적인 분위기에 어울리게 福會日과 興輪寺로 설정하였는가 하면, 종교적 초월성·신성성을 倍加시키기 위하여 天唱모티브까지 첨가하여 호원사사찰연기담으로 변개·윤색해 놓은 것이라 생각된다.

(2) ‘호원사’의 창건은 ‘虎顛’이라는 名義에 집착하여 그와 관련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사실이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 유래를 따질 것까지 없다. 비록 호랑이가 인간을 해치는 獐狂한 동물이기는 하나 그 또한 佛性を 지니고 있기 때문에 法力으로 다스리고 정성으로 대해주면 인간과 친연적인 동물이 된다. 이러한 호랑이에 대한 불교적 인식을 부각·표상하는 사찰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이때 마침 민간에서 구전되던 ‘<호랑이 처녀의 죽음>류’를 사찰연기담화하면서 그 이름도 호원사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3) 구비민담을 사찰연기담으로 윤색·건인한 주체는 설화 향유층(서민계층)이나 문헌 정착자가 아닌 종교적·사회적 특수계층인 佛僧이라 짐작된다. 즉 불승들이 佛寺 創建의 유별남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의 종교(불교)적 세계

관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虎患에 시달리는 중생들에게 정신적 안정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윤색·전인한 것이라 보아진다.

다음으로 '說話性'만에 주목하여 敍事意味와 거기에 내포된 世界認識를 살펴본 결과,

(1) 김현감호 설화에서 불교적 외피를 벗기고 보면, 호랑이가 여인으로 변신하였다는 것, 호랑이와 사람이 교구하였다는 것, 호녀가 자결함으로써 호환이 없어지고 김현도 부귀를 누리게 되었다는 세 개의 본질적 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김현의 이야기라기보다 인간으로 변신한 호녀의 이야기이다.

(2) 호녀는 完人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에서 변신하였고, 김현은 그러한 호녀의 욕구를 무산케 한 방해자이다. 따라서 서사적 갈등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호랑이[虎女]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인간[金現]과의 갈등이다. 그러나 양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고 극단적이지 않다. 호랑이이면서 호랑이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인간적 본성을 견지하려는 호녀의 자세와 자기가 교구한 상대의 본체가 호랑이임을 알고 난 이후에도 동물 아닌 인간으로 관념·대우해 주는 김현의 자세가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다. 김현이 부귀를 획득하게 된 것도 그런 양자의 자세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는 동물과 인간의 親緣性을 보인 것이라 볼 수 있으나, 호녀가 죽음과 더불어 본체로 회귀하였다는 사실에서 그 내면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2) 호녀의 비극적 운명은 그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의 근저에는 자기의 존재영역에 異物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호랑이는 원시시대부터 인간을 끝없이 괴롭혀온 맹수이다. 이러한 호랑이를 고대인들은 神聖體로 觀念·崇畏하였는가 하면, 거기까지 격상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간과 互惠의·親緣의 동물로 인식하였다. 이는 호랑이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공포의 대상을 승의로 초극하려는 우리 선인들의 보편적 심성의 발현이라 하겠다. 그러나 호랑이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 인식은 호랑이로 있었을 때에만 그리하였지 자기의 영역을 일탈하여 인간으로 변신하였을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즉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퇴치되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그렇게 된 사정의 이면에는 인간과 자연물과의 존재영역이 구분되면서 인간이 동물보다도 우월하다는 세계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호녀가 여느 虎變身譚에 등장하는 호랑이와는 다른 성격을 지녔음에도 죽게 된 것은 인간과 교구하면서 인간의 영역에서 살겠다는 그의 원망이 결과적으로 세계내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간으로서는 수용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서이다. 호녀 쪽에서 보면 세계 곧 인간의 횡포라 할지 모르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만의 영역과 질서를 지키려는 정당방위인 셈이다.